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48009-200000010123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

2017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 담 교 육 전 공

안 현 숙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

지도교수 최 현 주

이 논문을 교육학(상담교육)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안 현 숙

안현숙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박 종 덕 (인)

심사위원　최　　운 (인)

심사위원　최 현 주 (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년　12월

목 차

Ⅰ. 서 론 ····· 1

Ⅱ. 이론적 배경 ····· 5

1. 부모의 양육태도 ····· 5
2. 자기조절능력 ····· 12
3.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 ····· 19
4.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22

Ⅲ. 연구방법 ····· 27

1. 연구대상 ····· 27
2. 측정도구 ····· 27
3. 분석방법 ····· 30

Ⅳ. 연구결과 ····· 32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 32

2.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진로태도성숙, 학업성취와의 관계 ····· 36

3.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 43

Ⅴ. 논의 및 제언 ····· 45

참고문헌 ····· 49

부 록 ····· 58

ABSTRACT ····· 67

< 표 목 차 >

<표 Ⅱ-1> 부모양육태도의 8가지 하위요인 ····· 10
<표 Ⅱ-2> 의지적 관점에서의 동기와 자기조절 ····· 15
<표 Ⅱ-3> 행위통제성향의 분류 ····· 17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7
<표 Ⅲ-2> 부모양육태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 28
<표 Ⅲ-3> 자기조절능력 문항구성과 신뢰도 ····· 29
<표 Ⅲ-4> 행위통제성향 문항구성과 신뢰도 ····· 29
<표 Ⅲ-5> 진로태도성숙 문항구성과 신뢰도 ····· 30
<표 Ⅳ-1> 측정 변인의 기술 통계량 ····· 32
<표 Ⅳ-2> 측정 변인의 상관분석표 ····· 35
<표 Ⅳ-3> 측정모형의 적합도 ····· 37
<표 Ⅳ-4> 연구모형의 적합도 ····· 39
<표 Ⅳ-5> 부 양육태도 연구모형 검증결과 ····· 40
<표 Ⅳ-6> 모 양육태도 연구모형 검증결과 ····· 41
<표 Ⅳ-7> 부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 44
<표 Ⅳ-8> 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 44

< 그 림 목 차 >

〔그림 Ⅱ-1〕 Symonds의 양육태도 모형 ····· 7
〔그림 Ⅱ-2〕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 ····· 8
〔그림 Ⅳ-1〕 부 양육태도 측정모형 검증결과 ····· 37
〔그림 Ⅳ-2〕 모 양육태도 측정모형 검증결과 ····· 38
〔그림 Ⅳ-3〕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모형 ····· 42

논 문 개 요

청소년기는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과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인 성공적인 학업수행과 합리적인 진로 탐색과 결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해나가는 자기조절능력이 필수적이다. 선행연구에서 자기조절능력은 타고나는 것이기 보다는 보상과 처벌을 통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발달해가는 과정이므로 부모양육방식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 청소년들의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내적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들지만, 부모양육태도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토대로 청소년기 자녀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소재 고등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21명을 제외한 329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SPSS 17프로그램과 AMOS 20.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 Structure Equation Model)을 수행하였다. 특히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는 학업성취 및 진로태도성숙과 정적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는 진로태도성숙과 부적상관이었고, 학업성취는 부와의 관계에서만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기조절양식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정적상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의지적 억제양식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적상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둘째, 변인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 파악을 위해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기조절양식,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의지적 억제양식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자기조절양식과 진로태도성숙은 정적으로, 의지적 억제양식과 진로태도성숙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양식 및 의지적 억제양식과 학업성취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조절능력(자기조절양식, 의지적 억제양식)이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고등학생 자녀의 자기조절양식을 높여 진로태도성숙에 도움을 주지만,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고등학생 자녀의 의지적 억제양식을 높여 진로태도성숙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의지적 억제양식을 줄여 진로태도성숙을 높이고, 자기조절양식을 매개로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자기조절능력은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를 완전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특히 부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고등학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특히 부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는 고등학생인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억제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자기조절을 해나가도록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자녀의 진로태도성숙이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관련된 부모교육, 특히 부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기로 신체적·정서적·인지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지며, 자아정체감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을 이루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과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목표나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해야만 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다른 일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치롭게 여기는 성공, 성취, 적응 등은 대부분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과정이나 결과, 진로의 탐색과 결정,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해나가는 자기조절능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요즈음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사회 문화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등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조절능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Kuhl(2006)은 자기조절을 '의지'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자기조절이란 개인적 목표설정과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조정을 포함하는 인간행동의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이 원활하게 작용할 경우, 청소년들은 현재의 목표설정, 유지 및 수행과정으로서 학업이나 미래의 진로 준비에 몰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반대로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하거나 목표를 이루려 하더라도, 자기조절능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학업지연, 학업중단, 가출, 비행과 같은 의도했던 목표와는 상반된 문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상과 처벌을 통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발달해가는 과정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물론 영유아기에 비하여 청소년기에 부모의 역할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환경적) 요인은 역시 부모이며, 부모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과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자기조절능력은 청소년기의 중요발달과업인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내적 요인이 된다. 청소년들은 자기조절능력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정립하고, 흥미와 적성을 탐구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택한 진로결정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Super(1990)는 진로란 개인이 일련의 발달과업에 직면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해 나가려는 삶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자기조절능력은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며 이를 달성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행동전략을 세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주어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조절능력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는 중요한 내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업은 상급학교로의 진학,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업성취는 청소년기 학생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둔 고등학생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학업은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진로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자녀의 학업성취는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외적요인으로서의 부모양육태도와 내적요인으로서의 자기조절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중요발달과업인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를 이루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와 관련된 환경 변인들 중 가족관련 변인으로는 부모양육태도, 부모애착, 부모의 지지와 지원, 부모감독, 부모성취압력 등을 들 수 있다(박완성, 2007). 환경적 요인들의 대다수가 부모와 관련된 요인으로 이는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에 부모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모관련변인 중 대표적인 것은 부모양육태도로, Becker(1964)는 부모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우선,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로는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차미탁, 2011), 자녀가 부모에 대해 애정적·자율적·성취적·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진다고 하였다(강고은, 2014). 반면, 부모 지지가 전체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신인자, 2015),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진로태도성숙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부모애착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강고은, 2014),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강원덕, 2013)도 보고되고 있다.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로는 부모가 고등학생자녀를 인정해주고 수용해 줄 때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학업에 집중함으로써 학업수행능력과 학업성취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이나언, 김완일, 2016). 부모양육태도가 합리적·애정적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고(박경인, 신안나, 정승원, 2013), 부모양육태도가 자율적·친애적·성취적일수록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다(김근아, 2011)고 하였다. 반면, 고등학생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박은경, 2015)와 전체적인 부모지지가 고등학생자녀의 학업성취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신인자, 2015)도 존재한다.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자기조절능력으로, 자기조절능력과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와의 애착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며(김희진, 2015),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정서조절수준을 높일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발달한다(김남욱, 2012). 또한 여대생들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결정성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며, 남녀 대학생들이 취업이나 진로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절능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숙정, 유지현, 2009).

또한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로는 자율적·성취지향적·합리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조절학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윤석진, 2008)와 자기조

절학습은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좋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김은영, 2006) 또한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 학업수행이 뛰어나고 학교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권혜경, 2004)고 하였다. Mischel 외(1988)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업성취가 낮고, 사회적·정서적인 측면에서 부적응적·충동적·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런 특징들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자기조절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관련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들지만,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나 심리적 독립과 같은 다양한 변인을 매개로 하여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진로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다룬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의 경우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 학습영역으로 한정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이나 자기조절학습전략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다룬 내용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의지적 관점에서의 자기조절능력과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이나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고,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성숙된 진로발달과 학업성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주는 기초자료로, 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는 자기조절능력향상과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에 도움을 주어 올바른 방향의 발달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

1) 개 념

부모양육태도는 생애초기 부모와 자녀 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 성격과 정서 상태는 물론 자아개념, 태도, 가치관 및 행동수행능력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원식, 1975)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부모 혹은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내는 태도나 행동이라 하였고, Fishbein과 Ajzen(1975)은 양육태도란 하나의 문화방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로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 Hurlock(1978)은 양육태도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대우와 아동을 대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이는 다시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모-자녀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연적, 내연적 행동이라고 하였다. 김신정과 김영희(2007)도 부모양육태도란 어머니 혹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행동과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기능이며, 자녀에 의해 지각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양식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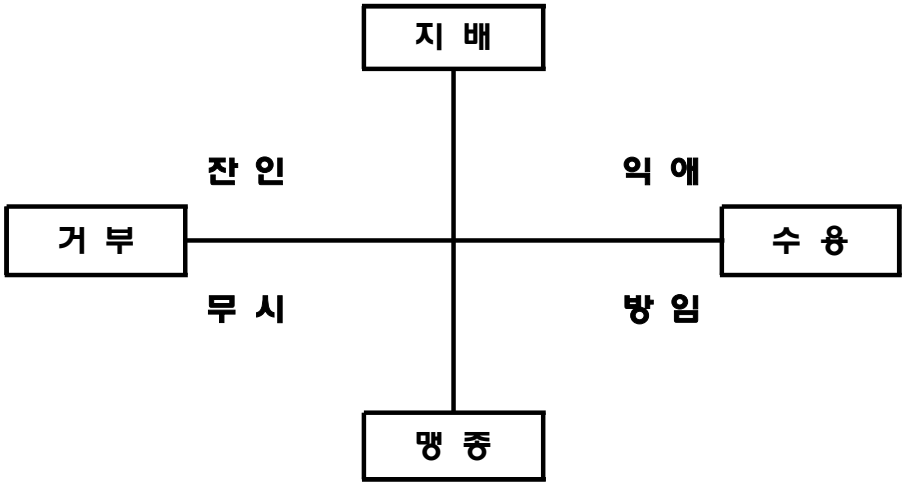
이상에서 정의한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가정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 스스로가 인식하는 양육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인식 정도이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가 긍정적이어도 자녀가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대로 부정적으

로 양육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자녀가 지각하는 태도에 따라 자녀의 정의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오성심 · 이종승, 1982). 또한 Schaefer(1959)도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보다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자녀의 지각과 보고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2) 양육태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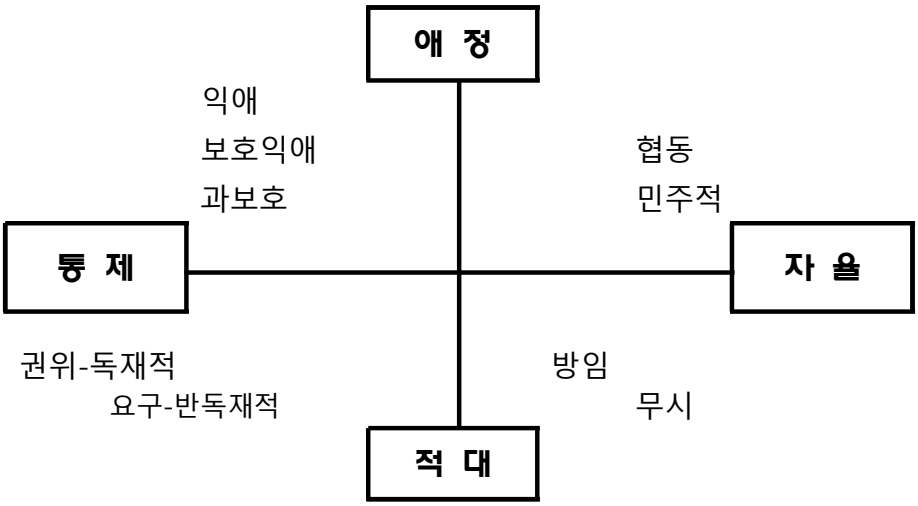
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원론적 접근과 유형론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차원론적 접근이란 서로 다른 양육태도의 측면들을 측정·분석하여 양육태도의 주요 요인(구조)들이 독립적으로 어떻게 결합되며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유형론적 접근은 자녀양육의 보편적인 방식이나 유형, 양육태도의 조직과 분위기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양육환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양육태도의 차원론적 접근으로는 Symonds와 Schaefer의 이론, 양육태도의 유형론적 접근으로는 Baumrind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차원론적 접근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이론화 · 체계화시킨 Symonds(1949)는 부모-자녀관계를 수용-거부(Acceptance-rejection)와 지배-맹종(Dominance-submission)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각 유형 사이에 익애, 방임, 무시, 잔인으로 나누어 좌표로 제시하였다. '수용-거부'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 요구를 비판없이 수용하거나 거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지배-맹종'은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지배하는지 또는 자녀의 의지에 따라 부모가 맹종하는지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최인선 · 주은지, 2013). 그는 가장 이상적인 양육태도란 일관성을 가지면서, 언제나 두 가지 차원에 있어 각각 중용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다(김계숙, 2013). 하지만 Symonds(1949)의 이론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정신분석학에 바탕을 둔 임상사례에 의한 연구로써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을 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태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로 인한 관계분석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정동숙, 2013). Symonds의 양육태도 모형은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Symonds의 양육태도 모형

Schaefer(1959)는 The Berkeley Growth study연구에서 신생아기부터 초기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단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네 가지 차원인 애정-자율적 태도, 애정-통제적 태도, 적대-자율적 태도, 적대-통제적 태도로 분류하였다. 애정-자율적 태도는 권고할 만한 양육태도로서 허용적이고 관용적이며 통제나 복종을 피함으로써 자녀가 능동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신감형성에 도움을 주는 유형이다. 애정-통제적 태도는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자녀는 의존적이며 사교성 및 창의성이 적으며 불안적인 정서지능을 갖게 된다. 적대-통제적 태도는 자녀의 행동에 체벌 또는 심리적 통제를 가하는 유형이며, 적대-자율적 태도는 자녀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자녀에 대해 무관심, 태만, 냉담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녀가 자신의 행동조절을 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유형이다. Schaefer의 양육태도모형은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

그 밖에 차원론적 접근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살펴보면, Becker(1964)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적-적대적 차원과 허용적-제한적 차원의 2가지로 분류하였고,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유형화하였다. 한종혜(1996)는 애정·수용 - 적대·거부, 민주·자율 - 권위·통제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유형론적 접근의 대표적인 이론가는 Baumrind이다. 그는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부모들을 인터뷰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관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크게 민주적, 권위적, 허용적 유형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민주적 양육태도(authoritative style)는 부모로서의 권위는 갖고 있지만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따뜻하게 지지하고 수용하는 양육방식으로 정의된다. 권위적 양육태도(authoritarian style)는 절대적 규칙에 따라 자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이고, 자녀에게 처벌을 하기도 하며, 부모의 말에 복종하도록 요구한다. 허용적 양육태도(permissive style)는 자녀에게 규칙과 제한을 거의 두지 않고 자녀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 수용적이고 통제나 처벌을 거의 하지 않는다. Baumrind는 이러한 세 가지 양육태도 중에서 민주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과 학업적 성취

를 촉진한다고 하였다.(오세령, 2014)

차원론적 접근과 유형론적 접근 외에 부모의 구체적 양육행동에 중점을 둔 접근도 있다. 허묘연(1999)의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과 문제행동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도출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적절한 부모양육행동의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허묘연은 국내외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감독이나 비일관성, 방치, 학대 등의 측면들을 포함하여 부모양육태도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기 진로발달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과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참여도가 급증하고 있는 요즈음의 현실을 반영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에는 그 가족이 속해있는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녀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대나 지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부모양육행동척도를 개발하였다.

허묘연(1999)은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을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의 8가지로 분류하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허묘연(1999)이 분류한 방식에 따라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표 Ⅱ-1>은 허묘연(1999)이 개발한 부모양육태도의 8개 하위요인을 분류하고 정의한 것이다.

<표 Ⅱ-1> 부모양육태도의 8가지 하위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정 의
감 독	학교 안팎에서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함. 구체적으로 자녀가 방과 후에 누구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함.
합리적 설명	자녀의 행동을 지도함에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설명함.
비일관성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양육행동을 나타냄. 구체적으로 같은 일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안내기도 함.
과잉기대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양육태도를 의미함. 구체적으로 자녀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최고가 되라고 강조하고 지적인 성취에 지나치게 열성적인 태도를 나타냄.
과잉간섭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를 말함. 자녀의 흥미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하며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불안해함.
학 대	양육자가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과도하고 정기적으로 해를 주고 신체적인 손상을 남기는 행위를 말함. 구체적으로 자녀가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상처를 내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것을 의미함.
방 치	신체적, 지적,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양육태도로 정의함.
애 정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양육태도를 의미함.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칭찬을 잘해주고, 껴안아주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는 양육태도를 의미함.

3)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또래관계, 학교적응, 문제해결능력, 정서지능, 비합리적 신념, 진로태도성숙, 학업성취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부모양육태도는 유아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는 출생과 함께 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므로 유아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유아기에 비해 청소년기는 또래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부모의 영향이 감소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부모는 자녀의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의 다양한 영역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문희, 2016). 부모양육태도는 영·유아기나 아동기 때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인격특성, 의사소통 등 자녀가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최인선, 주은지, 2013).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이나 행동, 부모가 갖는 삶의 가치관 등을 직·간접적으로 학습하면서 점차 성장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 발달 특성과 지적·정서적 행동에 다르게 나타나며, 성격형성에 영향을 준다(Becker, 1964).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적·자율적으로 지각될수록 과제선호 수준이 높아졌으며 애정적·자율적으로 지각될 때 부정적 감정수준이 낮아진다고 보았다(김종운과 김유진, 2009).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성을 허용하는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권애경, 임은미, 황금순, 2011). 이에 더하여 부모의 적절한 통제와 지도는 청소년 자녀의 성격발달과 사회적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유영주, 강완숙, 1996).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지각될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노호은, 박경자, 2001),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지성, 2013).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며(최인선, 주은지, 2013), 학교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혜영, 2007). 이와 같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자

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김경수, 김화경, 2011), 그리고 학교적응과 관련된 사회성 및 학업성적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오세령, 2014).

이처럼 부모의 가치관과 신념 및 양육태도는 한 사람의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녀 성격 형성 및 인지·정서발달과 학습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이강자, 2011)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는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오세령, 2014).

2. 자기조절능력

1) 개 념

인간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행하기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만 하거나, 하고 싶은 즐거운 다른 일들을 포기해야 하기도 한다. 우리들이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는 성공, 성취, 적응 등은 대다수 이런 노력이나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는 행동을 끝까지 실행해 나가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능력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 및 적응에 필수적인 부분이다(윤영신, 2007).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된다.

Kopp(1982)는 자기조절능력이란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해가며, 상황적 요구에 따라 활동을 시작하거나 멈출 수 있으며, 사회화 과정 중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외부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안정된 행동을 보이는 능력으로 보았다. Zeidner, Boekaerts & Pintrich(2000)는 자기조절을 자기관리(self-management)와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자기조절은 자기 설정 목표(self-set goals)를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자기관리는 타인에 의한 목표설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Kochanska, Coy와 Murray(2001)는 자기조절이란 넓게 생각해서 외적인 통제없이 어떤 활동을 유지하거나 억제하기를 요구하는 것에 순응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의 내면화 패러다임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Kochanska,

Murray(2001)는 자기조절능력은 행동적 측면에서 외적으로 표출되는 행동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목표를 위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조화롭게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Kochanscka와 Aksan(2006)은 자기조절이란 행동적 조절, 내적 조절, 정서조절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자기통제, 자기억제, 자기관리 등과 혼영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보다 간단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자기조절은 단순한 행동의 억제 뿐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책략 사용이나 인내력, 타인의 지시에 따르는 순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된다(이회란, 2012).

이지연·백정빈(2008)은 자기조절능력은 외적인 통제의 대상이 없이도 내면화된 규칙에 따라 인식된 자기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초기 사회화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문신, 김광웅(2003)도 자기조절능력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행동은 하고 그렇지 않은 능력은 억제하여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 해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Kuhl은 자기조절을 의지(volition)의 개념으로 보고, 자기조절을 개인적 목표설정과 설정한 목표 성취로의 행동조정을 포함하는 인간행동의 체계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기조절은 환경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목표에 적응시키는 개인의 능력으로 그 과정에는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행동적 구성요소들이 포함된다고 보았다(윤영신, 2007). 즉, Kuhl은 자기조절능력의 구성요인을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행동적 요소 등으로 분리하거나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강조하는 입장과는 달리 자기조절에 관여하는 각 요소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사회심리, 정서적 상호작용을 비롯한 개인의 사고 및 경험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과의 체계적인 상호작용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개인 적응능력의 포괄적인 틀로 보고하였다(김산옥, 2012).

마지막으로 자기조절의 개념들에는 목표설정, 조정과정, 전략, 피드백, 자기평가의 기본내용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즉, 목표설정, 전략, 계획, 정보의 조직, 부호화, 저장에 효율적 전략사용, 모니터링과 메타인지, 행위와 의지적 통제, 효율적인 시간관리, 자기동기적 신념들(자기효능감, 결

과기대, 내적흥미, 목표지향 등), 평가와 자기반영, 자신의 노력에 대한 긍지와 만족의 경험, 적합한 환경의 설립 등이 포함된 미시적 과정의 통합을 포함한다(Zeidner et al., 2000).

2) 의지(Volition)적 관점에서의 자기조절개념

자기조절이라는 개념은 '왜 그 행동을 하게 되는가?하는 동기에서 시작하였다. 개인이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 특히 자기조절과정이 포함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왔다(윤영신, 2007). 사회인지학습이론에서는 자신이 의도한 행동을 주도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이 의도를 수행하는 자기조절에 기여한다고 설명하였다(Bandura, 1986).

기대-가치이론에서는 학생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부하는 행동이 성공에 대한 기대와 성취에 대한 지각에 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Atkinson, 1974). 이처럼, 전통적인 자기조절이론들은 목표설정과 실행을 설명함에 있어, 성공과 같은 결과에 대한 자아효능감(self-efficacy), 기대-가치(expectation-value), 학습된 무기력(helplessness) 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Kuhl은 전통적 접근들이 자기조절에 있어 신념이나 다른 인지적 요소들의 역할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 목표설정의 동기, 즉 의도(intention)의 형성은 설명해주지만, 인간이 자신이 하기로 마음먹은 행동을 방해하는 유혹들을 뿌리치고 그 행동을 실행해내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였다(윤영신, 2007). Kuhl에 앞서, Ach(1910)도 의지를 동기와 구분하여 결정을 유지하고 실행을 매개하는 과정으로 보고, 의도된 행위를 유지하고 집행하는데 힘을 부여해주는 결정 이후적(post-decision)과정이라고 자기조절과정을 정의한 바 있다.

Kuhl은 자기조절(self-regulation)을 목표달성행동과 경쟁적인 행동 대안이 동시에 생기더라도 한번 결심한 의도를 보호, 유지하는 의지라고 설명하였다. 의지적 관점에서는 자기조절을 행동결정 이후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능력으로 의지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 자기조절에는 개인의 인지·정서·행동·동기 등 모든 측면이 관여하며, 자신의 의도(intention)에 따른 목표수행을 방해하는 경쟁적인 행동으로 일어나는 인

지적, 정서적, 행동적 선호 간의 갈등(preference conflict)을 조정하고, 의도수행을 촉진하는 전략을 포함하는 상위인지 차원의 작용을 말한다. 즉, Kuhl은 의지(volition)와 자기조절(self-regulation)을 동등하게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의지는 성격특성, 적성, 여러 인지적 처리과정을 포함하여 자신의 의도를 개인 내적이나 외적인 영향 속에서도 유지하고 행동으로 실행하기 위한 자기조절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Kuhl, 1994).

Kuhl의 동기와 자기조절(=의지)의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2> 의지적 관점에서의 동기와 자기조절

	동기(motivation)	자기조절(volition)
심리 상태	결정이전	결정 이후
작용 시점	하고자 하는 행위의 결정으로 종결	하고자 하는 하나의 결정사항이 실제 행위로 집행되는 전 과정
기 능	개인을 이후 의지 상태로 이끌어주고, 다양한 행위대안들의 가치에 대한 생각과 정보에 대한 수용성을 높임	하고자 하는 결정사항을 실제 행위로 이행(enactment)하게 해주고, 다른 행위대안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여 현재의 결정사항의 이행이라는 의도 보호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조절을 의지적으로(volitionally) 스스로 기능하는 것과 자아와의 통합여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Ryan & Deci, 2000). Deci, Eghrari, Patrick과 Leone(1994)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래 흥미가 없을지라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활동의 조절을 내면화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내면화의 타입이 통제를 받는 조건과 자율성을 지지받는 조건하에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통제적인 조건들은 내사(introjection)를 일으킨다. 즉 가치관이나 규제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없이 무조건적으로 취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자율성이 지지하는 조건들은 가치관과 규제들을 자신의 것

으로 통합(integration)시키는 것을 촉진한다. Deci 등(1994)에 따르면, 이러한 두 가지 타입의 내면화는 자유로운 선택행동과 자기 보고된 감정 사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과제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자아에 통합된 조절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사는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Kuhl도 이와 같이 의지와 자아와의 통합여부로 자기조절을 말하고 있다(Kuhl & Fuhrmann, 1998). 그는 이러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말하는 자아 통합된 상태의 조절을 자기조절이라 칭하였으며, 충분히 자아 통합되지 않은 상태의 조절을 자기통제라 부르며 자기조절의 하위개념으로 생각하였다. 자아통합의 여부는 행동에 얼마나 헌신하는가의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Kuhl은 자아통합여부에 따라 자기조절의 효율성을 말하며, 자기조절능력을 의지적 관점에서 제시한 4가지 양식 가운데 이론적 및 경험적 근거에 의해 2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자기조절과정에서 인지-정서적 거시체계들(cognitive-affective macrosystems)의 상호작용이 목표수행을 촉진하는 자기조절양식(self-regulation mode)과 목표수행을 억제하는 의지적 억제양식(volitional inhibition mode)으로 구분한다. 자기조절양식은 의도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동기통제, 정서통제, 자기결정, 자기이완 등 목표와 자기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들을 사용하여 목표 수행을 촉진하는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의미한다. 한편 의지적 억제양식은 동화, 외적통제와 같은 과잉통제의 부적응적인 자기통제양식인 의지적 억제와 실패공포, 주의 및 정서혼란과 같은 자기억제(self-inhibition)의 개념이 포함된 억압적 자기조절로 목표수행을 위해 자기가 소외되는 비효율적 자기조절능력을 의미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적 자기조절능력이 통제를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Ryan, Kuhl & Deci, 1997). 이때 행동이 자기 조절되거나 통제되는 정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잇따르는 행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 조절된 행동은 경쟁적인 상황이나 요구 상황에서도 유지되는(Deci & Ryan, 1985) 반면에, 통제받은 행동은 비록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지라도, 헌신적인 참여가 부족할 것이다. 자신의 의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헌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자기조절은 의지적으로 기능하며

자아가 통합된 상태인 '자기조절양식'과 과잉통제와 억압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 자기조절 상태인 '의지적 억제'의 두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3) 자기조절능력과 행위통제성향

행위통제성향은 개인의 특성과 관련한 것으로 개인이 어떤 일을 하고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수행해나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을 진행해가게 될 때 여러 가지 방해상황이나 경쟁적인 행동 대안이 생기더라도 자신이 원래 목표로 했던 행동들에 집중하면서 계속 유지해나가는 개인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Kuhl(1994)이 제시한 행위통제이론(Action Control Theory)에 따르면, 행위통제성향은 행위통제성을 필요로 하는 3가지의 특정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각각의 성향으로 행위통제성이 높은 사람은 '행위지향자'로, 행위통제성이 낮은 사람은 '상태지향자'로 분류하였다. 각 상황에 따른 개인의 행위통제성의 3가지 유형은 <표 Ⅱ-3>에 제시하였다.

<표 Ⅱ-3> 행위통제성향의 분류

상황＼ 유형	행위지향자	상태지향자
결정 상황	착수 성향	망설임 성향
수행 상황	지속 성향	변덕 성향
실패 상황	이탈 성향	집착 성향

이러한 행위통제성향에 대하여 정미수(2005)는 자기조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비교적 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요인이라 하였다. 그리고 윤영신(2007)도 행위통제성향이 자기조절능력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영향력있는 변인으로써 자기조절양식에 행위통제성향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전체 설명변량이 20%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행위통제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의지적 억제양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결정상황에서는 착수성향을 실패상황에서는 이탈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낮은 의지적 억제양식을 가지고 있어 바람직한 자기조절능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4) 자기조절관련 선행연구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Kopp(1982)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양육자의 역할과 관련성을 주장하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강조하였다. Kochanska와 Aksan(1995)은 사회화의 측면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이 어떻게 자녀의 자기조절을 발달시키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자녀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준을 습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표현해야 할 행동과 통제해야 할 행동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자기조절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Karreman, Tuiji, Ken,과 Dekovic(2006)은 양육방식과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부모의 통제 유형과 자기조절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가르치고 격려하고 자녀의 행동을 안내하는 양육방식은 자기조절과 긍정적인 관련을 가지나, 분노, 거친 행동, 비난, 그리고 과도하게 침해적인 통제는 자기조절과 부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은 긍정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써 이를 잘 조절하는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류은수, 2014).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Kuhl(Kuhl & Kazen, 2006)은 자기조절능력은 폭 넓은 적응능력이며, 효율적인 자기조절은 건강증진 행동, 긍정적 심리적인 의미의 안녕, 높은 과제 수행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기조절은 목표수행 행동의 동기과정에 대한 중앙통제라고도 하였다.

Kopp(1982)는 자기조절능력은 청소년기에 사회적인 자신감과 더불어 적절한 자기조절행동을 통해 환경과 조화롭게 조절해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수경(2004)의 연구에서도 긍정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와 같은 역경에 부딪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원동력이 자기조절능력의 동기로 보며 실제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권혜경(2004)은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 학업수행이 뛰어나고 심리적 어려움을 덜 겪으면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보고하였다.

3.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급변하는 현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영유아기에 비하여 청소년기의 부모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취하거나 저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은 역시 부모이다. 부모양육태도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인지·정서 발달을 통해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기조절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상과 처벌의 과정을 통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발달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획득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지켜야할 규칙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되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하여 지키도록 요구하며,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제한해 나가면서 자녀들 스스로가 자기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반복적으로 체험한 타율적 조절이 자기조절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된다. 이처럼 자기조절능력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영향을 토대로 발달해 나감으로써, 부모의 양육방식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Kochanska와 Alksan(1995)은 사회화의 측면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조절을 발달시켜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기준을 학습하게 되고 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행동과 통제해야 할 행동을 구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기조절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Kopp(1982)는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를 강조하였다.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양육태도의 세 가지 분류법 중에서 유형론적 접근과 행동론적 접근의 두 가지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다. 먼저 유형론적 접근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 김혜순과 강기숙(2005)은 부모의 수용적 · 온정적 · 합리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독립심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가정환경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을 길러준다고 하였다.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정서표현의 모델이

되어주고, 부모-자녀간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긍정적 정서조절을 배울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로써 자녀는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권이종과 김용구(2006)는 부모의 독단적, 허용적 양육태도에 비해 민주적, 권위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황희정(2013)도 독단적, 허용적 양육태도보다 민주적, 권위적 유형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독립심과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았다. 김정희(2011)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민주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하위척도인 자기조절양식, 의지적 억제양식, 일상스트레스 모두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자기조절능력 하위척도 중에서 의지적 억제양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주의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억제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행동론적 접근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 대하여, 김기정(2016)은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자녀의 감정조절과 감정이입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다양한 정서를 다루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는 부모로부터의 직접적 가르침 없이도 모방이나 강화를 통해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자녀가 스스로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략들을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최해주와 문수백(2012)은 모의 수용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해 주며, 애정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게 될 때 자녀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기결정성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유은희와 임미옥(2006)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고, 김선희(2001)는 부모가 자녀를 대함에 있어 관심, 적절한 감독, 보호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온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지와 함께 적절한 수준의 감독과 통제는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의 중요한 선행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경님(2001)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민수홍(1996)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애착과 감독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이 높다고 보았다. Kochanska와 Aksan(1995)도 자녀를 온정적으로 대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주며 독립심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박성연과 이은경(2009)은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를 보일수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이 저하된다고 하였고, 한영민(2005)은 부모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Karreman, Tuiji, Ken과 Dekovic(2006)은 양육방식과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통제유형과 지기조절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가르치고 격려하고 행동을 안내하는 자녀양육행동은 자기조절과 정적 관련을 가지지만, 분노, 비난, 거친 행동, 과도한 통제는 자기조절과 부적상관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김문신(2003)은 부모의 정서표현 및 정서수용태도가 통제적이고 엄격할수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을 낮춘다고 보고하였으며, Kuhl(1994)은 냉담한 부모의 반응이 자녀의 신뢰감 결핍을 유발하고, 무시와 과잉보호는 자녀의 적극성과 자율성을 저해하여 의존성을 가지게 하며, 지나친 외적통제는 자녀에게 만성적 좌절감을 안겨주어 자기조절능력을 손상시킨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 애정, 적절한 감독, 합리적 설명과 같은 태도들은 자기조절능력을 높이고, 부모의 부정적 정서표현, 방치, 지나친 외적 통제, 학대는 자기조절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윤영신(200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의 합리적 설명, 모의 합리적 설명과 애정의 양육행동은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척도인 자기조절양식에 영향을 주고, 부모의 부정적 정서

표현,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치, 학대의 양육행동은 의지적 억제양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4.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1)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양육태도의 세 가지 분류법 중에서 주로 차원론적인 접근이었으며, 관련성에서도 불일치하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우선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소개하면, 차미탁(2011)은 부모양육태도가 고등학생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차원은 자녀의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의 하위 척도 모두에,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차원은 자녀의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의 하위 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강고은(2014)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부모-자녀 간 애착이 안정적이고,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은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육근선(2013)은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 애정적·자율적·성취적·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안요섭(2009)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의 자율적·성취적인 양육태도, 모의 애정적·합리적 양육태도가 높은 진로태도성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숙(2006)은 부모의 애정적·자율적·성취적·합리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을 높이며, 특히 애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김숙이(2005)는 부모의 적극적이고 신뢰로운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자율적·성취적·합리적일 때 자녀는 안정적, 체계적인 진로발달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중학생자녀에게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학생자녀의 진로발달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박종은(2007)은 부모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여중고생자녀는 자존감이 높게 나타나고, 높은 자존감은 높은 진로성숙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는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소희숙(2003)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자율적일수록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적대적·통제적일수록 진로성숙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애정적·성취적·자율적·합리적인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과 다른 연구결과들도 있다. 부모의 전체 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모의 친밀한 부모-자녀관계가 진로태도성숙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신인자(2015)는 고등학생자녀에 대한 부모지지는 전체 진로태도성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로태도성숙 하위요인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전체 부지지는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 목적성, 확신성에, 전체 모지지는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지지 하위요인인 도구적 조력은 진로태도성숙에 부적상관을, 정서적 지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기영락(2010)은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헌신과 엄격·친밀한 부모자녀관계가 진로성숙도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고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친밀감은 진로태도성숙을 저해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의 양육태도와 모의 양육태도가 서로 다르게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차미탁(2011)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자녀의 진로성숙태도와 부모양육태도와의 관계에서 부와 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부의 애정적 태도가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강고은(2014)은 부모애착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부애착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모애착은 직접적 영향력이 없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모의 애착보다 부와의 안정적 애착관계가 고등학생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김선영(2006)은 예술계고와 실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성숙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모두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부의 양육태도가 모의 양육태도에 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나경(2014)은 중학생자녀의 진로태도성숙과 부모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의 양육태도가 모에 비해 진로성숙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 모는 남학생에게 부는 여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남학생은 부모가 자율적·성취적일 때, 여학생은 부가 애정적·자율적·성취적·합리적일 경우와 모가 성취적일 경우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주연과 조연희(2015)는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성취적 양육태도가 남녀학생 모두의 진로태도성숙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성취적 양육태도를 제외한 하위요인들은 부, 모와 남녀학생의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성취적 양육태도를 제외한 부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모의 성취, 애정, 자율적 양육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부의 성취적, 자율적 양육태도와 모의 성취적, 합리적 양육태도가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연구함에 있어 부, 모와 자녀의 성에 따라 구별하여 분석할 경우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개변인을 통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김희진(2015)은 어머니의 애착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강고은(2014)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육근선(2013)은 자아분화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즉,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자아분화수준이 높고, 자아분화수준이 높을 때 진로태도성숙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강원덕(2013)은

부모양육태도는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함께 관련 변인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와의 관계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은경(2015)은 고등학생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차미탁(2013)도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오세령(2014)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성적 상위그룹의 경우 부의 양육행동 중 과잉기대가, 성적 하위그룹의 경우 과잉간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도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신인자(2015)는 전체적인 부모지지가 고등학생자녀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기대가 자녀에게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부지지의 하위요인인 진로관련모델링과 모지지 하위요인인 도구적 조력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정현옥(2007)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고교생이 중학생에 비해 좀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고, 차영남(2005)은 부모의 성취압력과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성취도 사이에는 부적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박순길(2003)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애정적·자율적·성취적·합리적 양육태도로 자녀를 대할 경우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영미(2006)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양육방식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는 양육태도일 때 학업성적이 높았으며, 무관심과 학대의 양육방식일 때 학업성적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미영(2005)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자율적일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자율적·합리적일수록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개변인을 통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최원경(2015)은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인 유능성이 높아지고, 유능성이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며, 회복탄력성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취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오세령(2014)은 성적이 상위그룹인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는 회복탄력성을 매개로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유미영(2010)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을 받아 학업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윤석진(2008)도 자율적·성취적·합리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조절학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일관성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중·고생으로 올라갈수록 부모양육태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기조절학습능력이나 회복탄력성 등의 매개변인을 통해 부모양육태도는 지속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학업성취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함께 관련 변인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1, 2학년 생 총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1부를 제외하고 최종 329부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29)

특성	구분	N(%)
성별	남자	130(40%)
	여자	199(60%)
학년	1학년	146(45%)
	2학년	183(55%)
전체		329(100%)

2. 측정도구

1) 부모양육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허묘연(1999)이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Likert식 4점 척도, 총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총8가지로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이다. 이 중에서 비일관성, 과잉간섭, 과잉기대, 학대, 방치는 역채점 문항이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양육태도 하위척도별 문항

과 신뢰도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부모양육태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구분	문항	문항수	신뢰도 계수	
			아버지	어머니
감독	1,9,17,25	4	.78	.76
합리적 설명	3,11,19,27,41	5	.83	.80
비일관성	2*,10*,18*,26*	4	.75	.68
과잉기대	5*,13*,21*,29*,33*,38*	6	.82	.78
과잉간섭	4*,12*,20*,28*,37*,40*,43*	7	.82	.83
학대	7*,15*,23*,31*,35*,39*	6	.85	.85
방치	8*,16*,24*,32*,36*	5	.75	.73
애정	6,14,22,30,34,42	6	.87	.87

*는 역채점문항임

2) 자기조절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Kuhl과 Fuhrmann(1998)이 개발한 의지구성목록(Volitional Components Inventory: VCL)의 영어판(VCL-short version)을 근거로 윤영신(2007)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Likert 4점 척도, 총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총3가지로 자기조절양식(self-regulation mode)과 의지적 억제양식(volitional inhibition mode), 일상스트레스이다.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하위척도별 문항과 신뢰도는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자기조절능력 문항구성과 신뢰도

구분	문항	문항수	신뢰도계수
자기조절양식	1,2,6,14,22,32,40,41,43,48	10	.80
의지적 억제양식	16,18,20,27,30,31,34,47,53,55,56	11	.75
일상 스트레스	4,5,7,8,10,21,24,26,28,29,44,46,49, 50,51,54	16	.89

3) 행위통제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특성인 행위통제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Kuhl(1994)이 개발한 행위통제척도(Action Control Scale: ACS-90)를 근거로 윤영신(2007)이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2개 하위척도에 12문항씩 총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실패 관련', '결정관련'의 두 가지 상황에서의 행위통제성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의 행위통제성향 하위척도별 문항과 신뢰도는 <표 Ⅲ-4>와 같다.

<표 Ⅲ-4> 행위통제성향 문항구성과 신뢰도

구분	문항	문항수	신뢰도계수
이탈 성향	1,3,5,7,9,11,13,15,17,19,21,23	12	.020
착수 성향	2,4,6,8,10,12,14,16,18,20,22,24	12	-.199

4) 진로태도성숙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Crites(1978)의 진로성숙검사(CMI)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한 진로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Likert식 5점 척도, 총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태도성숙도의 5가

지 하위요인은 첫째,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 정도를 측정하는 결정성, 둘째,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수집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와 관련된 준비성, 셋째, 자신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체적인가와 관련된 독립성, 넷째, 진로선택을 통한 가치추구 및 내재적 욕구와 현실적 타협 정도와 관련된 목적성, 다섯째, 진로선택문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정도를 측정하는 확신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태도성숙 하위척도별 문항과 신뢰도는 <표 Ⅲ-5>와 같다.

<표 Ⅲ-5> 진로태도성숙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문항수	신뢰도계수
결정성	1,6*,11,16*,21*,26*,31,36,41*,45*	10	.92
준비성	4,9,14*,19,24,29,34,39,43,47	10	.75
독립성	5*,10*,15*,20,25*,30,35,40,44*	9	.82
목적성	2*,7*,12*,17*,22*,27*,32*,37*	8	.87
확신성	3*,8*,13,18*,23,28*,33,38*,42,46*	10	.84

*는 역채점문항임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7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의 검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에서 사용할 척도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각 척도별 Cronbach'a 계수를 확인하였다.

둘째,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자기조절양식, 의지적 억제양식),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 사이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살

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 Structure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이 때,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성격특성변인인 행위통제성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통제한 후, 연구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통계패키지에 500개 샘플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간접 효과에 대한 신뢰 구간을 명시하였다. 만약 간접효과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서영석, 2010).

Ⅳ. 연구 결과

1.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1) 측정 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측정 변인인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진로태도성숙, 학업성취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구하였다. 단,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부모학대의 왜도가 +2를 넘어 정규성검증에 위배되므로, 로그함수로 변환하여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기술통계량은 <표 Ⅳ-1>에 제시하였다.

<표 Ⅳ-1>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량

(N=329)

측정변인	하위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 긍정적 양육태도	감독	2.76	.68	-.262	-.29
	합리적 설명	2.83	.63	-.347	.339
	애정	3.07	.65	-.635	.162
	전체	2.89	.54	-.465	.396
부 부정적 양육태도	비일관성	1.94	.61	.491	.281
	과잉기대	1.93	.63	.723	.394
	과잉간섭	1.98	.62	.594	.196
	학대	.23	.28	1.5	1.859
	방치	1.61	.54	.894	.143
	전체	1.75	.41	.976	1.631
모 긍정적 양육태도	감독	3.20	.59	-.626	.232
	합리적 설명	2.90	.57	-.402	.543
	애정	3.23	.61	-.688	-.053
	전체	3.11	.48	-.499	.127
모 부정적 양육태도	비일관성	2.04	.59	.305	-.008
	과잉기대	2.02	.60	.333	-.138
	과잉간섭	2.22	.66	.376	-.365
	학대	.24	.28	1.469	1.708
	방치	1.44	.47	1.123	.7
	전체	1.81	.40	.723	.948

자기조절 능력	자기조절양식	2.37	.51	.135	-.342
	의지적억제양식	2.31	.49	.164	-.219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성	3.53	.98	-.334	-.805
	진로준비성	3.72	.56	-.42	.438
	진로독립성	3.94	.63	-.556	1.026
	진로목적성	3.40	.83	-.438	.572
	진로확신성	3.29	.69	.054	.115
	전체	3.58	.55	-.269	.565
학업성취도	국어	6.58	1.67	-.418	.015
	수학	6.48	1.84	-.566	-.195
	영어	6.83	1.74	-.755	.313
	전체	19.89	4.72	-.576	-.001

2) 측정 변인의 상관분석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진로태도성숙, 학업성취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표 Ⅳ-2>에 제시하였다. <표 Ⅳ-2>에 제시한 주요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성취($r_{부}$=.115, p<.05/ $r_{모}$=.159, p<.01), 진로태도성숙($r_{부}$=.292, p<.01/ $r_{모}$=.281, p<.01)과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별로는 부감독(r=.109, p<.05), 모감독(r=.190, p<.01), 모애정(r=.122, p<.05)이 학업성취와 약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부감독(r=.265, p<.01), 부합리적설명(r=.220, p<.01), 부애정(r=.233, p<.01), 모감독(r=.202, p<.01), 모합리적설명(r=.254, p<.01), 모애정(r=.237, p<.01)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진로태도성숙과 약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부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성취(r=-.125, p<.05)와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성취와 유의하지 않았다. 부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별로는 부비일관성(r=-.129, p<.05), 부학대(r=-.124, p<.05), 부방치(r=-.111, p<.05)가 학업성취와 약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r_{부}$=-.266, p<.01/ $r_{모}$=-.254, p<.01)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위요인별로는 부비일관성(r=-.269, p<.01), 부과잉기대(r=-.177, p<.01), 부과잉간섭(r=-.208, p<.01), 부방치(r=-.195, p<.01), 모비일관성(r=-.322, p<.01),

모과잉간섭(r=-.207, p<.01), 모방치(r=-.153, p<.01)가 진로태도성숙과 약한 정적상관과 중간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자기조절양식은 학업성취(r=.132, p<.05)와 약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진로태도성숙((r=.440, p<.01)과는 중간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의지적 억제양식은 학업성취와 유의하지 않았고, 진로태도성숙(r=-.300, p<.01)과는 약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자기조절양식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r_{부}$=.409, p<.01/ $r_{모}$=.471, p<.01)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r_{부}$=-.258, p<.01/ $r_{모}$=-.316, p<.01)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별로는 부감독, 부합리적설명, 부애정, 모감독, 모합리적설명, 모애정(r=.266~.461, p<.01)과 약한 정적상관과 중간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별로는 부비일관성, 부과잉간섭, 부방치, 모비일관성, 모과잉간섭, 모학대, 모방치(r=-.169~-.359, p<.01)와 약한정적상관과 중간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의지적 억제양식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r_{부}$=-.272, p<.01/ $r_{모}$=-.239, p<.01)와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r_{부}$=.372, p<.01/ $r_{모}$=.350, p<.01)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별로는 부감독, 부합리적설명, 부애정, 모감독, 모합리적설명, 모애정(r=-.189~-.237, p<.01)과 약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별로는 부비일관성, 부과잉기대, 부과잉간섭, 부학대, 부방치, 모비일관성, 모과잉기대, 모과잉간섭, 모방치(r=.156~.350, p<.01)와 약한 정적상관과 중간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Ⅳ-2> 측정 변인의 상관분석표

(N=32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학업성취	1																							
2. 진로태도성숙	.134*	1																						
3. 부긍정양육태도	.115*	.292**	1																					
4. 부감독	.109*	.265**	.786**	1																				
5. 부합리적설명	.090	.220**	.816**	.404**	1																			
6. 부애정	.084	.233**	.865**	.508**	.633**	1																		
7. 부부정양육태도	-.125*	-.266**	-.523**	-.305**	-.478**	-.514**	1																	
8. 부비일관성	-.129*	-.269**	-.389**	-.209**	-.381**	-.378**	.788**	1																
9. 부과잉기대	-.009	-.177**	-.159**	-.057	-.157**	-.183**	.688**	.361**	1															
10. 부과잉간섭	-.095	-.208**	-.313**	-.160**	-.329**	-.290**	.751**	.490**	.438**	1														
11. 부학대	-.124*	-.086	-.390**	-.196**	-.382**	-.393**	.721**	.535**	.348**	.419**	1													
12. 부방치	-.111^	-.195^^	-.683^^	-.514^^	-.512^^	-.660^^	.661^^	.451^^	.266^^	.306^^	.423^^	1												
13. 모긍정양육태도	.159**	.281**	.717**	.525**	.617**	.631**	-.412**	-.344**	-.131*	-.312**	-.255**	-.459**	1											
14. 모감독	.190**	.202**	.554**	.589**	.336**	.431**	-.274**	-.232**	-.096	-.185**	-.154**	-.331**	.771**	1										
15. 모합리적설명	.079	.254**	.573**	.308**	.695**	.425**	-.343**	-.290**	-.127*	-.298**	-.218**	-.309**	.817**	.389**	1									
16. 모애정	.122*	.237**	.636**	.392**	.492**	.689**	-.396**	-.324**	-.101	-.287**	-.255**	-.485**	.872**	.505**	.632**	1								
17. 모부정양육태도	-0.03	-.254**	-.413**	-.264**	-.374**	-.385**	.698**	.545**	.465**	.495**	.480**	.538**	-.568**	-.323**	-.519**	-.556**	1							
18. 모비일관성	-.010	-.322**	-.341**	-.254**	-.295**	-.293**	.569**	.655**	.285**	.370**	.334**	.400**	-.438**	-.276**	-.411**	-.391**	.767**	1						
19. 모과잉기대	.062	-.100	-.113*	-.052	-.125*	-.104	.451**	.224**	.697**	.206**	.242**	.224**	-.207**	-.087	-.220**	-.202**	.663**	.326**	1					
20. 모과잉간섭	-.005	-.207**	-.352**	-.237**	-.337**	-.299**	.518**	.339**	.240**	.596**	.328**	.356**	-.366**	-.152**	-.367**	-.383**	.754**	.446**	.381**	1				
21. 모학대	-.035	-.097	-.249**	-.110*	-.239**	-.272**	.418**	.329**	.148**	.229**	.564**	.314**	-.424**	-.213**	-.393**	-.437**	.706**	.476**	.333**	.415**	1			
22. 모방치	-.154**	-.153**	-.426**	-.286**	-.336**	-.430**	.505**	.382**	.232**	.293**	.269**	.665**	-.643**	-.480**	-.481**	-.619**	.640**	.459**	.244**	.314**	.371**	1		
23. 자기조절양식	.132*	.440**	.409**	.266**	.328**	.418**	-.258**	-.263**	-.057	-.203**	-.103	-.304**	.471**	.328**	367**	.461**	-.316**	-.311**	-.071	-.229**	-.169**	-.359**	1	
24. 의지적억제양식	-.039	-.300**	-.272**	-.211**	-.223**	-.237**	.372**	.222**	.321**	.348**	.156**	.266**	-.239**	-.189**	-.195**	-.205**	.350**	.272**	.262**	.350**	.097	.210**	-.239**	1

*p<.05, **p<.01

2.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진로태도성숙, 학업성취와의 관계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각각의 잠재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진로성숙태도, 학업성취는 모두 잠재변수로 각각의 선행연구에 의한 하위요인의 측정변수에 의해 구성된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Ⅳ-3>에서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χ^2 검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표본크기와 상관계수 등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이에 복잡한 모형의 적합도 확인을 위해 여러 학자들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re Residual)을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Kline,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도 모형의 적합도 확인을 위하여 χ^2, TLI, CFI, SRMR, RMSEA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의 값이 .90이상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보고(Bentler, 1990), SRMR의 값이 .08이하일 때 적절하다고 보며(Hu & Bentler, 1999), RMSEA값이 .05이하일 때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이하일 때 적합도가 적절한 모형, .10이상일 때 적합도가 부적절하다고 본다(Browne & Cudeck, 1992).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의 측정모형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측정모형의 χ^2값은 415.692(df=188, p<.001), TLI는 .902, CFI는 .920, SRMR은 .063, RMSEA는 .061로 나타났다. 모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측정모형의 χ^2값은 398.025(df=184, p<.001), TLI는 .905, CFI는 .924, SRMR은 .068, RMSEA는 .060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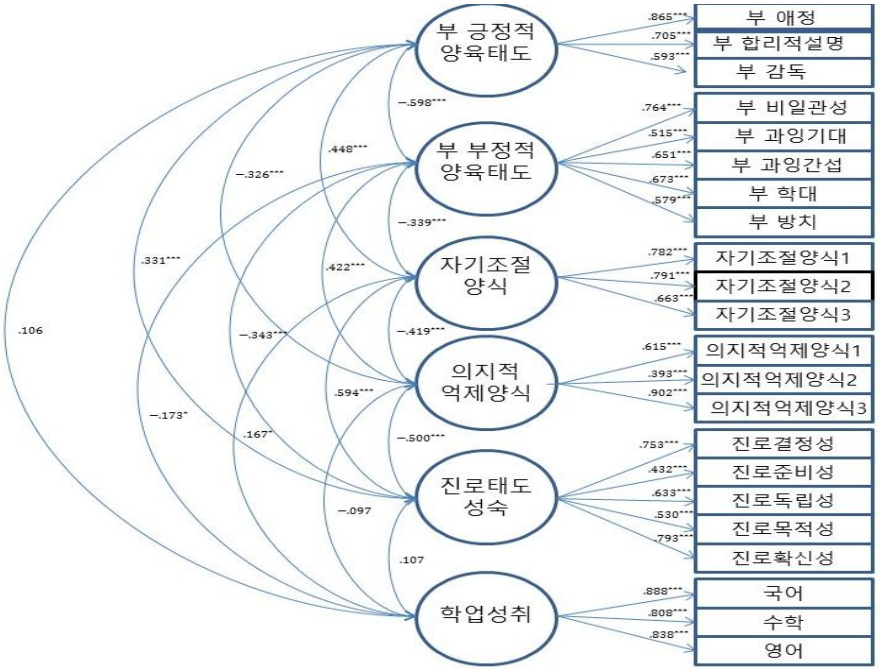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측정모형과 잠재변인 간의 상관과 요인적재량은

〔그림 Ⅳ-1〕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으로 확인된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이 .3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에 따라 〔그림 Ⅳ-1〕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 양육태도의 측정변인들은 .515~.865, 자기조절양식의 측정변인들은 .663~.782, 의지적 억제양식의 측정변인들은 .393~.902, 진로태도성숙의 측정변인들은 .432~.793, 학업성취의 측정변인들은 .808~.888로 모든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따라서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측정모형에서 22개의 측정변인으로 6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3> 측정모형의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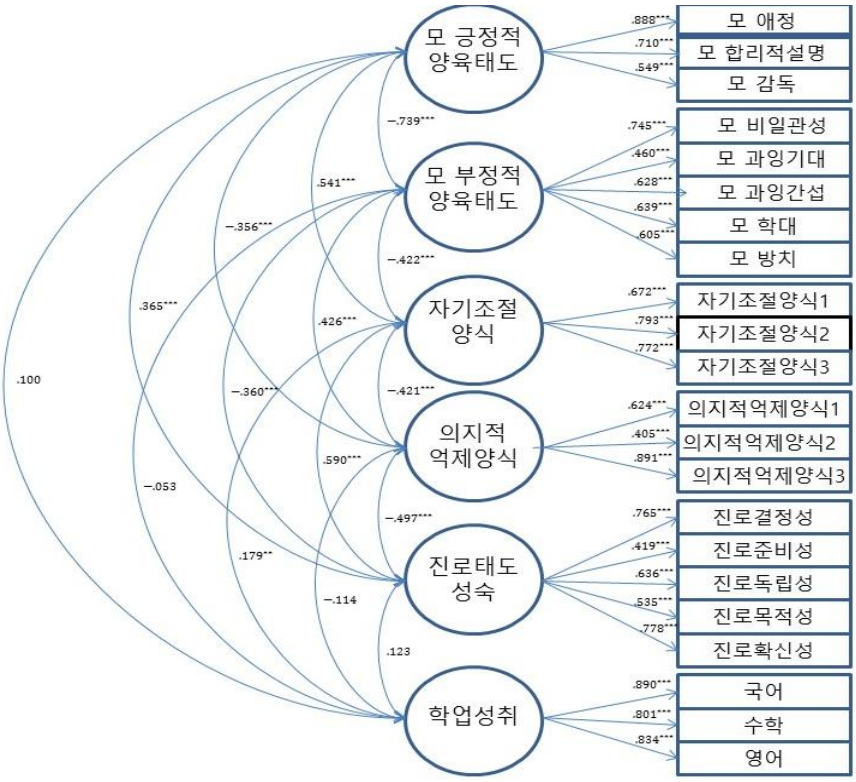
(N=329)

	χ^2	df	p	TLI	CFI	SRMR	RMSEA
부	415.692	188	.000	.902	.920	.063	.061
모	398.025	184	.000	.905	.924	.068	.060



*p<.05, ***p<.001

〔그림 Ⅳ-1〕 부 양육태도 측정모형 검증결과



*p<.05, **p<.01, ***p<.001

〔그림 Ⅳ-2〕 모 양육태도 측정모형 검증결과

2) 구조모형 검증

부모양육태도(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자기조절양식, 의지적억제양식), 진로태도성숙,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결과, 부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측정모형의 χ^2값은 415.692(df=188, p<.0001), TLI는 .902, CFI는 .920, SRMR은 .063, RMSEA는 .061로 나타났다. 모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측정모형의 χ^2값은 398.025(df=184, p<.0001), TLI는 .905, CFI는 .924, SRMR은 .068, RMSEA는 .060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한 적합도 판단기준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4> 연구모형의 적합도

(N=329)

	χ^2	df	p	TLI	CFI	SRMR	RMSEA
부	415.692	188	.000	.902	.920	.063	.061
모	398.025	184	.000	.905	.924	.068	.060

3) 구조모형 분석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진로태도성숙,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적재량을 <표 Ⅳ-5>, <표 Ⅳ-6>, 〔그림 Ⅳ-3〕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에서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로 가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긍정양육태도가 자기조절양식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부정양육태도가 자기조절양식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부정양육태도가 의지적 억제양식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의 긍정양육태도가 의지적 억제양식으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의 긍정양육태도가 의지적 억제양식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부모가 긍정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자기조절양식을 높이고, 부모가 부정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의지적 억제양식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의 긍정양육태도는 자기조절양식과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의지적 억제양식과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아, 부의 긍정양육태도는 고등학생자녀의 긍정적 측면의 자기조절능력을 높이고, 부정적 측면의 자기조절능력을 낮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조절양식이 진로태도성숙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양식이 학업성취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지적 억제양식이 진로태도성숙으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지적 억제양식이 학업성취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양식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을 높이지만, 의지적 억제양식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을 저해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행위통제성향이 자기조절양식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반면, 행위통제성향이 의지적 억제양식으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표 Ⅳ-5> 부 양육태도 연구모형 검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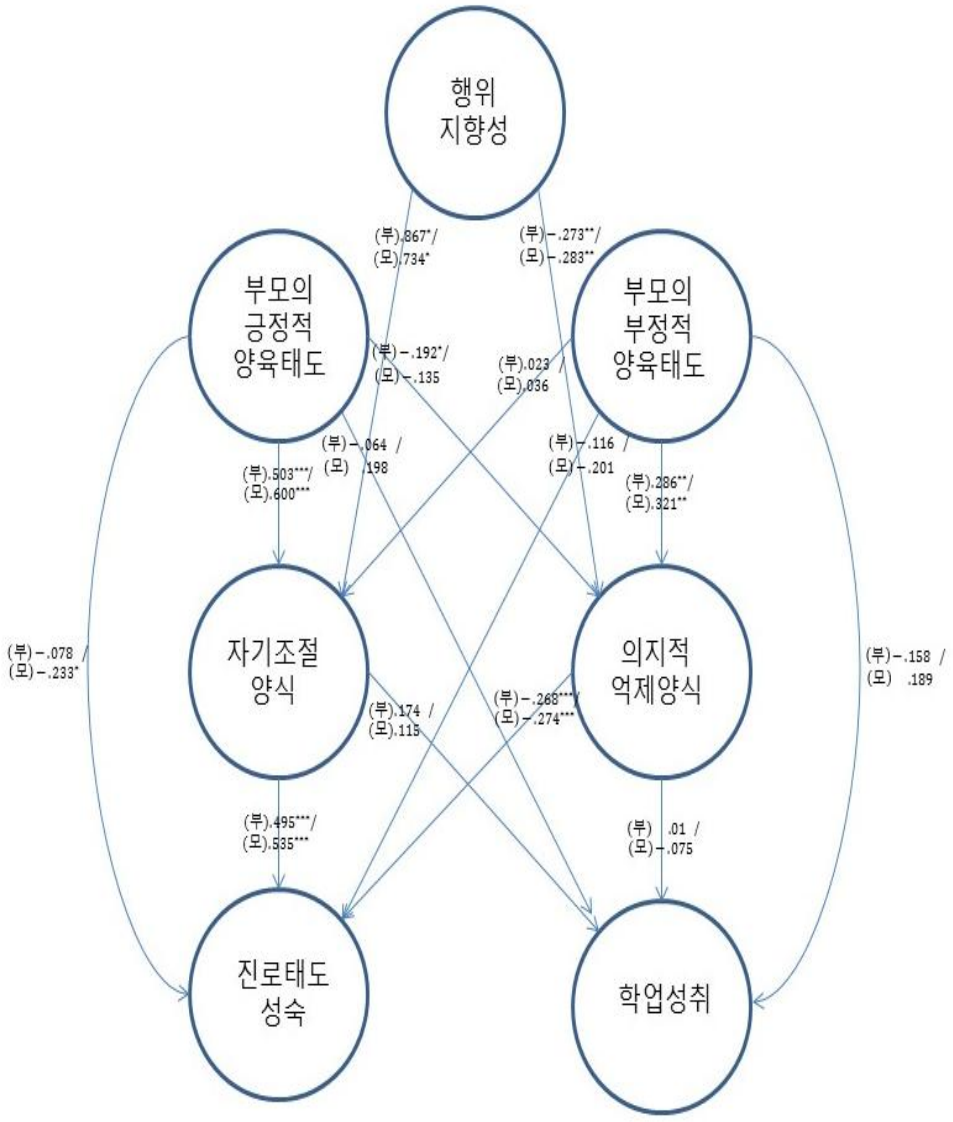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S.E	p
긍정양육태도→자기조절양식	.387	.503***	.065	.000
긍정양육태도→의지적 억제양식	-.122	-.192*	.053	.022
부정양육태도→자기조절양식	.021	.023	.076	.783
부정양육태도→의지적 억제양식	.221	.286**	.07	.002
긍정양육태도→진로태도성숙	-.056	-.078	.062	.365
긍정양육태도→학업성취	-.168	-.064	.248	.499
부정양육태도→진로태도성숙	-.10	-.116	.072	.163
부정양육태도→학업성취	-.50	-.158	.291	.085
자기조절양식→진로태도성숙	.458	.495***	.08	.000
자기조절양식→학업성취	.593	.174	.282	.036
의지적 억제양식→진로태도성숙	-.30	-.268***	.083	.000
의지적 억제양식→학업성취	.041	.01	.314	.896
행위통제성향→자기조절양식	8.41	.867*	4.071	.039
행위통제성향→의지적 억제양식	-2.195	-.273**	.695	.002

*p<.05, **p<.01, ***p<.001

<표 Ⅳ-6> 모 양육태도 연구모형 검증결과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S.E	p
긍정양육태도→자기조절양식	.486	.60***	.081	.000
긍정양육태도→의지적 억제양식	-.107	-.152	.072	.135
부정양육태도→자기조절양식	.036	.036	.096	.709
부정양육태도→의지적 억제양식	.278	.321**	.096	.004
긍정양육태도→진로태도성숙	-.18	-.233*	.087	.038
긍정양육태도→학업성취	.561	.198	.335	.094
부정양육태도→진로태도성숙	-.19	-.201	.099	.055
부정양육태도→학업성취	.656	.189	.39	.092
자기조절양식→진로태도성숙	.511	.535***	.091	.000
자기조절양식→학업성취	.404	.115	.313	.197
의지적 억제양식→진로태도성숙	-.30	-.274***	.084	.000
의지적 억제양식→학업성취	-.30	-.075	.316	.343
행위통제성향→자기조절양식	5.868	.734*	2.44	.016
행위통제성향→의지적 억제양식	-1.979	-.283**	.646	.002

*p<.05, **p<.01, ***p<.001



*p<.05, **p<.01, ***p<.001

〔그림 Ⅳ-3〕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모형

3.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긍정적양육태도, 부정적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자기조절양식, 의지적 억제양식)을 거쳐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한 결과는 <표 Ⅳ-7>, <표 Ⅳ-8>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Bootstrapping방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할 때는 Bias-Corrected된 신뢰구간(CI)의 검증결과에 0의 값이 포함되지 않아야 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매개분석결과, 부긍정양육태도→자기조절양식→진로태도성숙(β=.177, p<.01), 부긍정양육태도→자기조절양식 →학업성취(β=.229, p<.05), 부긍정양육태도→의지적 억제양식→진로태도성숙(β=.037, p<.05), 부부정양육태도→의지적 억제양식→진로태도성숙(β=-.066, p<.01), 모긍정양육태도→자기조절양식→진로태도성숙(β=.248, p<.01), 모부정양육태도→의지적 억제양식→진로태도성숙(β=-.083, p<.01)의 각 경로들은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구조모형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부모의 긍정양육태도는 고등학생 자녀의 자기조절양식을 높여 진로태도성숙에 도움을 주지만, 부모의 부정양육태도는 고등학생 자녀의 의지적 억제양식을 높여 진로태도성숙을 저해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긍정양육태도는 자기조절양식을 높여 학업성취를 높이며, 의지적 억제양식을 줄여 진로태도성숙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와의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자기조절능력은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7> 부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B	S.E	95% 신뢰구간		p
			하한	상한	
긍정양육태도→자기조절양식→진로태도성숙	.177**	.045	.097	.274	.003
긍정양육태도→자기조절양식→학업성취	.229*	.124	.019	.484	.04
긍정양육태도→의지적 억제양식→진로태도성숙	.037*	.021	.005	.087	.019
긍정양육태도→의지적 억제양식→학업성취	-.005	.042	-.117	.079	.742
부정양육태도→자기조절양식→진로태도성숙	.01	.04	-.058	.101	.772
부정양육태도→자기조절양식→학업성취	.012	.059	-.074	.177	.688
부정양육태도→의지적 억제양식→진로태도성숙	-.066**	.03	-.142	-.022	.006
부정양육태도→의지적 억제양식→학업성취	.009	.078	-.128	.194	.781

*p<.05, **p<.01

<표 Ⅳ-8> 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B	S.E	95% 신뢰구간		p
			하한	상한	
긍정양육태도→자기조절양식→진로태도성숙	.248**	.067	.141	.417	.002
긍정양육태도→자기조절양식→학업성취	.196	.168	-.08	.582	.195
긍정양육태도→의지적 억제양식→진로태도성숙	.032	.027	-.01	.099	.127
긍정양육태도→의지적 억제양식→학업성취	.032	.049	-.026	.178	.253
부정양육태도→자기조절양식→진로태도성숙	.018	.056	-.068	.149	.655
부정양육태도→자기조절양식→학업성취	.015	.06	-.059	.254	.501
부정양육태도→의지적 억제양식→진로태도성숙	-.083**	.04	-.194	-.023	.006
부정양육태도→의지적 억제양식→학업성취	-.083	.109	-.408	.07	.28

**p<.01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1,2학년생 총350명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행위통제성향, 진로태도성숙 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29부의 자료를 토대로 각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변인들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자기조절양식, 의지적 억제양식), 진로태도성숙,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 Structure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또한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자기조절능력(자기조절양식, 의지적 억제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성취 및 진로태도성숙 모두와 정적상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진로태도성숙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에서 모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와의 관계에서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자기조절양식은 학업성취 및 진로태도성숙 모두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의지적 억제양식은 진로태도성숙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학업성취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자기조절양식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정적상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의지적 억제양식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적상관, 부정적 양육태도와 정적상관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의 효율적인 자기조절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을수록,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아진다는 김정희(2011)의 연구와 부모의 민주·자율·온정적 태도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홍애경(200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모가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청소년들이 학교적응을 잘한다는 김정희(2011)의 연구와 부모의 애정적·자율적·성취적·합리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발달 및 진로태도성

숙을 높인다는 이미숙(2006)과 김숙이(2005)의 연구와 유의미하다.

둘째,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진로성숙태도,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부모양육태도에서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로 가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고 하는 박은경(2015), 육근선(2013), 차미탁(2013)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직접적인 변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통해 청소년자녀의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기조절양식,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의지적 억제양식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의 합리적 설명, 애정의 양육행동이 자기조절양식에, 부모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치, 학대의 양육행동이 의지적 억제양식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윤영신(2007),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의지적 억제양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김정희(2011)의 연구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절양식과 진로태도성숙은 정적으로, 의지적 억제양식과 진로태도성숙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양식 및 의지적 억제양식과 학업성취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조절능력(자기조절양식, 의지적 억제양식)이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긍정양육태도는 고등학생 자녀의 자기조절양식을 높여 진로태도성숙에 도움을 주지만,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고등학생 자녀의 의지적 억제양식을 높여 진로태도성숙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의지적 억제양식을 줄여 진로태도성숙을 높이고, 자기조절양식을 매개로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기조절양식을 높이고, 의지적 억제양식을 줄여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한층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애착에 비해 부의 애정적 태도, 애착이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강고은(2014), 이나경(2014), 차미탁(2011), 김선영(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양한 매개변인을 통하여 고등학생자녀의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고은(2014), 육근선(2013), 강원덕

(2013), 최원경(2015), 오세령(2014), 유미영(201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가 성장하여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보다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자기조절능력이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를 완전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특히 부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등학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과 같은 긍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하며, 이러한 양육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교육, 특히 부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즉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와 같은 양육태도는 고등학생인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따라 본인의 감정과 행동을 억제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자기조절을 해나가도록 유도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주요 발달과업인 진로태도성숙이나 학업성취를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울산지역 고등학생 329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대상지역을 넓히는 한편, 다양한 환경의 대상자를 표본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한 연구방법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청소년들인 연구대상자가 사회적 바람직성을 보이려고 하는 경향성을 통제할 수 없고, 청소년들이 객관적으로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면접법이나 관찰법과 같은 좀 더 심층적인 연구방법들이 병행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업성취의 기준을 등급으로 나누었으므로, 점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통제변수인 행

위통제성향의 신뢰도가 지나치게 낮아서 행위통제성향이 자기조절능력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였는지에 대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서 모 긍정양육태도와 고등학생자녀의 진로태도성숙의 직접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친밀감이 진로태도성숙을 저해한다는 기영락(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고,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상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양육태도의 일치와 불일치 여부, 남녀학생의 성별에 따른 구분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를 함께 고려하여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선행연구에서 이나경(2014)은 중학생자녀의 경우 모는 남학생, 부는 여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주연과 조연희(2015)도 초등학생자녀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녀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주 대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강고은(201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 부모 애착,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원덕(201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애경, 임은미, 황근순(2011). 부모 양육행동, 청소년의 자기개념 및 공격성의 구조모형, 교육문제연구, 17(1), 77-89.

권이종, 김용구(2006). 청소년 이해론. 서울: 교육과학사.

권혜경(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영락(2010).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수, 김화경(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143-170.

김경진(2013). 청소년의 포커싱 태도가 스트레스 반응과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계숙(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근아(2011). 충동성, 부모양육태도, 생활습관, 자기조절 학습능력, 학습동기가 초등학생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정(2016). 자기조절능력의 뇌과학적 이해와 교육적 시사점.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남욱(2012).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정서조절능력 및 진로성숙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문신(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신, 김광웅(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6(1), 3-13.
김문희(2016).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감 및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과 유연옥(2011). 부모의 정서표현유형과 유아의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아동교육, 20(1), 95-111.
김산옥(2012). 청소년기 학교스트레스와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영(2006). 예술계와 실업계 고교생의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희(2001). 자기통제력과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연(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학업실패내성의 매개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숙이(200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애착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신정, 김영희(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김영진(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습동기 및 학업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2006).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아동의 성취목적 및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운, 김유진(2009). 아동,청소년상담 :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0(1), 455-468.
김혜순,강기숙(2005).유아의 지능, 가정양육환경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17-26.
김혜영(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양육태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진(2015). 고등학생의 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갈등적 독립 및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호은, 박경자(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세교육과학, 49, 55-71.
류은수(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조절 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인, 정승원, 신안나(2013). 초 · 중학생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2), 91-118.
박미영(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성연, 이은경(2009).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구성요소의 타당성 연구;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아동학회지, 30(2), 211-229.
박순길(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완성(2007).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20(4), 87-101.
박은경(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영어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은경(2015).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 외국어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 비교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은(2003). 여중 ·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양육태도 및 애착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은(2007). 여중·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양육태도 및 애착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영주(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및 스트레스의

상호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서영석(2010). 상담심리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22(4), 1147-1168.
소희숙(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진로성숙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인자(2015). 부모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요섭(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현지(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 지능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1-15.
오세령(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영지와 이기학(200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23-1039.
유미영(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영주, 강완숙(1996). 가정학의 반성적 고찰 :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한 시론 1. 대한가정학회, 34(3), 1-8.
유은희, 임미옥(2006). 부모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97-106.
육근선(2013).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석진(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전략 및 학업성취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영신(2007).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강자(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목표지향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님(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아동의 사회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2), 97-110.
이기학, 한종철(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이나경(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나언, 김완일(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11), 265-290.
이미숙(2006).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경(2004).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정, 유지현(2009). 여대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8(2). 35-64.
이영미(2006). 초등학생의 사교육과 학업동기, 부모양육방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연, 조연희(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녀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7(2), 53-70.
이지연, 백정빈(2008).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 8(1), 57-78.
이회란(2012). 부모의 자율성지지 및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 자녀의 자기조절양식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지성(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동숙(2013).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태도가 학교폭력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수(2005). 의지조정전략과 행동통제성이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

학원.
정원식(1975). 『인간과 교육』(서울: 배영사).
정현옥(2007). 중고교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문, 이종연(2010). 중학생의 동기조절전략과 자기결정동기 및 학업성취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405-428.
차미탁(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영남(2005).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생의 시험불안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원경(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기본심리욕구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인선, 주은지(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학업적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169-206.
최해주, 문수백(2012).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아동학회, 33(1), 23-40.
한영민(2005). 부모의 정서표현 및 유아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종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창훈, 조영아(2014).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낙관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2), 205-231.
허묘연(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애경(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희정(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tkinson, J. (1974). Strength of motivation and efficiency of performance. In J. Atkinson, & J. O. Raynor(Eds.), Motivation and achievement, 193-218. Washington DC: Winston.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aumrind, D (1991),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In P, A. Cowan & E. M. Hetherington (Eds.), Advances in family research (vol.2), Hillsdale, New Jersey ; Erlvaum.

Becker, W. C (1964). Consez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I N.Y : Russel Sag Foundation.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Brone, M.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Deci E. L., Eghrari, H., Patrick, B. C., & Leone, D. (1994). Facilitating internalizati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62, 119-142.

Crites, J. O. (1978). Manual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for adults. Monterey, CA: CBT/McGraw-Hill.

Deci, E. L.,&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num.

Fishbein, s.,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Hair, J. F., Anderson, R. E., Babin, B. J., & Black, W. C.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Vol. 7).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Hu, L.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55.
Hurlock, E. B. (1978). Child development(6th ed). N. Y: Mcgraw-Hill.
Karreman, A., van Tuiji, C., van A ken, M. A. G. and Dekovic, M. (2006). Parenting and self-regulation in preschoolers; A meta-analysi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5, 561-579.
Kline, R. B. (2010).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Y: Guilford Press.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s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Kochanska, G., & Aksan, N. (2006). Children's conscience and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74, 1587-1617.
Kochanska, G., Coy, K. C., & Murray, K. T. (2001).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ten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72(4), 1091-1111.
Kopp, C.(1982). The adolesc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Kuhl, J. & Kazen, M. (2006). Putting self-regulation theory into practice: A user's mannual.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5(3), 408-418.
Kuhl, J. (1994). Action versus state orientati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Action Control Scale(ACS-90). In J. Kuhl, & J. Beckmann(Eds.), Volition and personality ; action versusstate orientation. 47-60. Seattle: Hogrefe & Huber Publishers.
Kuhl, J., & Fuhrmann, A. (1998) Decomposing self-regulation and self-control: The Volitional Components Inventory. In J.

Heckhausen, & C. Dweck (Eds),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cross the life span. (pp.15-49.) Hillsdale, NJ: Erlbaum.

Mischel, W., Shoda, Y.s & Peake, P. K. (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hology, 54(5), 687-696.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Ryan, R. M., Kuhl, J. & Deci, E. L. (1997). Nature and autonomy: An organizational view of social and neurobiological aspects of self-regulation in behavior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701-728.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36-384.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pp. 197-261). Sanfrancisco: Jossey-Bass.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Y.: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84-88.

Zeidner, M., Boekaerts, M., & Printrich, P. (2000). Self-regulation; derection and challenges for future research. In M. Boekaerts, P. Pintrich, & M. Zeidner(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Academic Press.

Zimmerman, B. J.(2000). Attaining self-regul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rctive. In M.Boekaerts, P. R. Pintrich, & M. Zeidn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pp.13-39). SanDiego, CA: Academic Press.

설 문 지(부록)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답해주신 결과는 본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 작성시 유의사항

1.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 정도입니다.
2. 각 문항은 좋고 나쁜 것, 맞고 틀린 것이 없으므로 설문 문항을 정확히 읽고 난 후,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해 주시면 됩니다.
3.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연구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빠뜨리는 문항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 내어 설문지를 작성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지도교수: 최 현 주
연 구 자: 안 현 숙

※ 다음은 여러분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u>반드시</u> 기록하여 주십시오.

(　　) 학년		성별: 남(　)/ 여(　)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등급/ 수학(　　)등급/ 영어(　　)등급	

* 부모양육태도

다음의 문항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나타냈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기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각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왼쪽에, 어머니는 오른쪽에 구분하여 각각 그 정도에 따라 ○표 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내가 방과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낼 때도 있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잔소리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정도 이상으로 벌을 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나보다는 바깥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고 어떤 때는 야단을 안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나에게 내 능력 이상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4.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내가 잘못하면 매부터 드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내가 밤에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8.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9. 칭찬이나 벌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0. 내가 알아서 할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까지 잔소리하셨다.	①	②	③	④

아버지					어머니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21. 나에게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2.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3. 작은 잘못에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4.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5.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6.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 대한 태도가 평소와 달라지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7.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8.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9.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0. 나에게 칭찬을 잘 해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1. 화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심하게 때리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2.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없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3.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4.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5.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6.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7. 너무 걱정하셔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8.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9.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하게 때리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0.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하다고 못하게 하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1.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되는가 그 이유를 말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2.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3. 나에 대해 덜 걱정하셨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 자기조절능력척도(VCI-S)

다음 문항을 읽고 여러분 자신이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도에 따라 ○표 해주십시오.

번호	나는.....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일에 집중하고 싶어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4	내 생활에서 좋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	①	②	③	④
5	지금 하고 있는 공부(또는 일)가 큰 부담이 된다.	①	②	③	④
6	좋은 생각을 해서 기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상반된 목표들로 인해 갈등을 겪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8	최근에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9	해내고 싶은 일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0	지금 내 생활은 무척 힘들다.	①	②	③	④
11	불쾌한 경험하면 기운 빠진 상태가 오래 간다.	①	②	③	④
12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13	만족스럽게 능력과 흥미를 계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4	처음엔 하기 싫던 과제에서도 즐거운 점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15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미룬다.	①	②	③	④
16	참을 수 없는 갑작스런 충동이 자주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17	실패하고 나면 왜 그렇게 됐었는지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8	하기 싫은 과제는 마지막에 가서 겨우 끝내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19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20	과제를 제 시간에 못 마칠 경우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면 과제를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21	내 생활이 아주 불안정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2	문제가 생겨도 매번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23	지금 해야 할 일들은 거의 마쳤다.	①	②	③	④
24	최근에 학교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25	끝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곧 바로 시작하기를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26	목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7	목표달성을 위해 스스로 압박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8	생활에 변화가 많이 있어서 이에 대처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번호	나는.....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9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0	못 끝낸 과제를 마음에 항상 담아 둔다.	①	②	③	④
31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일을 못해낸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상한다.	①	②	③	④
32	어려운 과제이지만 쉽다고 생각해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3	과제를 제때 마치지 못해 주위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34	과제완성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 상상해보고서 과제를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35	어려움이 닥치면 일을 더 잘 한다.	①	②	③	④
36	일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37	언짢은 일이 생기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①	②	③	④
38	요즘 내 생활이 아주 편안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9	스스로 정한 원칙과 규칙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40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①	②	③	④
41	과제가 지루해지면 다시 재밌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2	평소에 에너지가 부족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43	장애물이 생기면 곧 바로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44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45	목표달성에 실패하면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①	②	③	④
46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①	②	③	④
47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는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48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도 빨리 긴장을 풀 수 있다.	①	②	③	④
49	직면하기 어려운 아픈 경험을 많이 했다.	①	②	③	④
50	내 생활의 큰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51	최근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그들에 대한 적대감을 많이 느꼈다.	①	②	③	④
52	무슨 일을 할 때 선택은 내가 한다.	①	②	③	④
53	유혹이 닥치면 그것을 극복하는 데 무력하다는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54	내 생활의 중요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①	②	③	④
55	다른 사람이 기대한 것을 못한다면,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다.	①	②	③	④
56	하기 싫은 자질구레한 일은 자주 미루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 행위통제성향 척도(ACS-90)

다음 문항에서 제시된 상황일 때, 여러분 자신과 가장 비슷한 것을 1번 또는 2번 중에서 골라 ○표 해 주십시오.

1	내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 어디서도 찾지 못할 때	나는 다른 것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1
		나는 잠시 후 잊어버린다.	2
2	내가 곧 끝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스스로 재촉해야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	1
		나는 그 일을 끝내 버리는 것이 쉽다.	2
3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나는 그 일에 적응하는데 오래 걸린다.	1
		나는 잠시 동안 걱정하고 나면 더 생각하지 않는다.	2
4	내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이 지루해질 때	나는 뭐라도 할 기운을 내는 것이 힘들다.	1
		나는 서둘러서 할 일을 찾는다.	2
5	내가 시합에서 매번 질 때	나는 졌다는 것을 곧 잊어버린다.	1
		나는 졌다는 생각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다.	2
6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 준비를 할 때	나는 넘지 못할 높은 산을 만났다고 느낀다.	1
		나는 적당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2
7	내가 방금 산 새로운 장비를 떨어뜨려 수리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을 때	나는 빨리 그 일을 잊으려고 할 것이다.	1
		나는 그 일을 잊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2
8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 때	나는 대개 어렵지 않게 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	1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기가 힘들다.	2
9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또다시 부재중일 때	나는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 생각이 계속난다.	1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볼 때까지 쉽게 잊고 있는다.	2
10	내가 기대하지 않은 자유시간이 생겨 무엇을 할까 결정해야 할 때	나는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1
		나는 너무 오래 생각하지 않고 금방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	2
11	내가 재료를 많이 사고 집에 돌아와서야 돈을 더 지불한 것을 알았지만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나는 다른 무엇에도 집중할 수 없다.	1
		나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2
12	내가 할 일을 집에서 해야 할 때	나는 그 일을 마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1
		나는 대개 금방 그 일을 마친다.	2
13	내가 한 일이 모두 만족스럽지 않을 때	나는 너무 오래 괴로워하지 않는다.	1
		나는 신경이 마비된 느낌이다.	2
14	내가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곧 마쳐야 할 때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1
		나는 계획을 쉽게 세우고 그대로 해나간다.	2
15	내가 교통체증으로 중요한 약속을 못 지켰을 때	나는 처음에는 다른 어떤 일도 시작하기가 힘들다.	1
		나는 얼른 그 일을 잊고 다른 일을 한다.	2
16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둘 다 할 수 없을 때	나는 서둘러 한 가지를 시작하고 하지 못하는 다른 일은 잊어버린다.	1
		나는 그 하지 못한 일을 잊는 것이 힘들다.	2
17	내게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바로 시작하지 못할 때	나는 그 일을 천천히 잊어버린다.	1
		나는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한다.	2

18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하기 싫을 때	나는 그 일을 해서 끝내 버린다.	1
		나는 그 일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2
19	내가 정말 침울해지는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일도 하기가 힘들다.	1
		나는 다른 일을 해서 기분을 바꾸는 것이 쉽다.	2
20	내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닥쳤을 때	나는 어디서 시작할지 너무 길게 생각할 때가 많다.	1
		나는 그 과제를 쉽게 시작한다.	2
21	내가 같은 날 여러 가지 일을 잘못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1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곧 일을 계속 한다.	2
22	내가 지루한 숙제를 해야 할 때	나는 대개 어렵지 않게 그 숙제를 해나간다.	1
		나는 그 숙제를 금방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다.	2
23	내가 정말 잘하려고 모든 노력을 쏟았지만 그 일을 모두 이루지 못했을 때	나는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지 않는다.	1
		나는 다른 어떤 일도 시작하기가 힘들다.	2
24	내가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나는 빨리 그 일을 해서 끝낸다.	1
		나는 그 일에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때가 많다.	2

* 진로태도성숙척도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나태는 문항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경제적인 면을 먼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에도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 대해 상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직업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7	비록 내 적성하고는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근무시간도 짧고 작업환경도 좋은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를 알아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그 직업에서 출세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되는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주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2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봉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②	③	④	⑤
23	나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신문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있게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른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나의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류 직장에 취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줄지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29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길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⑤
32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보다는 승진 기회 등을 먼저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주길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①	②	③	④	⑤
37	직업을 통해 보람을 얻기보다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내 자신과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9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더라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로를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5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6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자신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Adolescence is a time when the efforts to achieve various tasks and goals are needed for the preparation of the future life. Self regulation ability is a necessary factor for the accomplishment of successful school performance and reasonable career exploration. Earlier studies revealed that self regulation ability would be developed through rewards and penalties so that parenting style could affect it considerably. It is an important inner factor that affects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direct connection among parenting style,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becomes lower as students advance to a higher grade. However, many studies showed that parenting style constantly affected adolescents based on various mediator variable. This study ref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mediator variables.

For thi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350 high school students in Ulsan area. 21 students who responded unreliably were excluded. Using SPSS 17 and AMOS 20.0 programmes, descriptive statistic, correlation analysis and SEM(Structure Equation Model) were performed. Especially, Bootstrapping was used for the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of self regulation abilit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research result is as follows.

First, positive parental attitude(supervision, reasonable explanation, affection) is positively cor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maturity. On the other hand, negative parental attitude(inconsistency, excessive expectation, over-involvement, mistreatment, negligence) is negatively correlated to career maturity. Only relationship with a father is negatively cor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 Also, self-regulation mode is favorable for positive parental attitude and unfavorable for negative parental attitude. volitional inhibition mode is unfavorable for positive parental attitude and favorable for negative parental attitude.

Second, parental attitude is directly nonsignificant to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as a result of structure equation model analysis on parental attitude to figure ou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parental attitude and self-regulation mod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lation between negative parental attitude and volitional inhibition mode i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self-regulation mode and career maturity is correlated positively, on the other hand, volitional inhibition mode and career maturity is correlated negatively. The relation between self-regulation mode, volitional inhibition mode and academic achievement is nonsignificant.

Third, in view of the result so far achieved, positive parental attitude lends assistance to career maturity by advancing self-regulation mode of high school students, on the other hand, negative parental attitude is impediment to career maturity by boosting volitional inhibition mode. Especially, a father's positive parental attitude raises career maturity to a higher level by

reducing volitional inhibition mode and advances academic achievement by the medium of self-regulation mode.

To sum up, it is concluded that self-regulation ability is an important variable to completely mediate relation between parental attitude,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Positive parental attitude, especially a father's positive attitude is view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is research. It is suggested that the efforts to advance positive parental attitude(supervision, reasonable explanation, affection), especially a father's attitude, would be significant in order for a high school student to enhance self-regulation ability,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Also, negative parental attitude(inconsistency, excessive expectation, over-involvement, mistreatment, negligence) induces inefficient self-regul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by suppressing his or her feeling and actions according to the parents' expectation so that it affects adolescent children's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 negative way.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the parent education programme has to be reinforced in order to support high school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